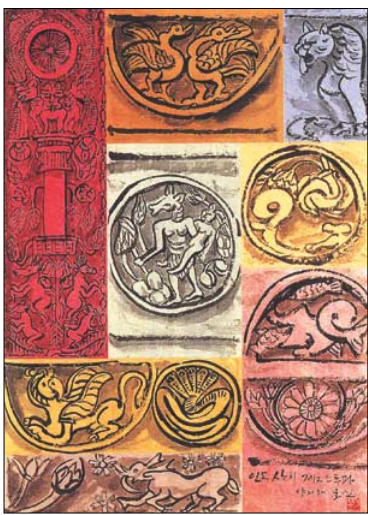


수묵화로 만나는 인도



인도 산지 제2스투파의 부조



붉은 꽃송이를 강조한 '꽃송이들의 기도'

이호신 화백 학교재 2006 첫 초대展(24일까지) 순례의 자취 50여 작품, 현란하면서도 담백하게

사색의 땅 인도, 석가모니부처님과 간디의 나라 인도. 그 인도의 수많은 유물 유적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들의 삶이 녹아든 문화를 축축한 수묵화로 만나보자.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학교재 2006년 첫 초대전을 장식한다. 인도의 문화와 불교 유적, 인물과 마을을 담은 이 화백의 그림은 1월 11~24일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50일 간 인도 순례의 자취를 화폭에 담은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1층 전시실에는 인도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2층 전시실에는 쿠시나가르의 열반당, 아잔타 석굴 전경 등 다양한 불교유적들을 화폭에 옮겼다. 살아 숨쉬는 듯 표정과 동작이 생생한 마하트라 간디, 테레사 수녀 등 인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초상

화와 정답어린 마을 풍경은 지하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의 만다라와 윤회의 세계관, 이호신 화백이 그리고자 한 인도의 모습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이호신 화백이 인도 성지순례에서 만난 유적, 사람, 그리고 떠난 영혼들과 조우한 결과물들이다.

이호신 화백은 "여인들의 원색 사리와 빨강파랑으로 채색된 소름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뒤덮고 있는 현란한 색채들은 움직이는 만다라와 같다"며 "그들의 생생한 삶 속에서 나는 간디를 만나고 테레사 수녀를 만났다"고 말한다.

한편 1월 11일 오후 5시 전시회 개막과 함께 최근 발간한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739-4937 kgang@buddhapia.com

노래방서 찬불가 신나게 불러보자

풍경소리 찬불동요 금영 반주곡에 100곡 수록, 법회의식곡 6곡도

올해는 노래방에서 불교의 아름다운 영상이 함께 어우러진 찬불가를 부르는 재미에 푹 빠져보자.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만든 찬불동요들이 (주)금영에 의해 노래방 반주곡으로 탄생했다. 풍경소리는 음원을 제공하고, 영상을 비롯한 음원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은 (주)금영에서 작업했다. 특히 영상작업은 (주)금영이 자체적으로 노래방용에 걸맞은 영상을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풍경소리의 정유탁씨는 "찬불가의 노래방 보급을 위해 3~4년 전부터 노력해 왔는데 잘 안됐다"며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는 기업들이 찬불가 찬송가 등의 반입을 기피했었는데 (주)금영이 발심을 해서 이런 불사가 가능했다"고 말



좋은벗 풍경소리가 금영노래방 기기에 찬불가 반주곡 100곡을 수록했다. 사진은 노래방에서 찬불가를 부르는 불자들.

했다. 풍경소리의 찬불가 노래방 보급사업과 (주)금영이 추구하는 '가족이 함께 가는 노래방'의 방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작업으로 (주)금영의 노래방 반주곡에는 가톨릭가 쟁쟁공공

아기백조 참선 쉼쉴 등 찬불동요 84곡과 기원 육환장 축제 등불보살 등 찬불가요 16곡 등 총 100곡이 수록됐다. 찬불동요·가요 외에 삼귀의 천양합니다 등의 법회의식곡 6곡도 추가됐다.

풍경소리 총재 지현 스님은 "금영의 도움으로 찬불가를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불교포교에 있어 큰 일"이라며 "앞으로도 풍경소리가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불자들에게서 바람이 돼 달라"고 밝혔다.

한편 풍경소리는 지난 5월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와 음악듣기 사이트 등을 통해 찬불동요를 무료 다운로드 시스템과 찬불가 핸드폰 벨소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드라마 속 신돈 vs 역사 속 신돈

개혁가인가 요승인가



고려 말 혼란기를 틈타 왕권에 도전하고 왕의 판단력을 흐린 요승으로 평가돼 왔던 '신돈'. 최근 MBC-TV의 특별기획드라마 '신돈'을 통해 개혁가로 대중적인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다.

드라마 속 신돈은 현실적인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목타이나 불경이 아닌 바른 정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개혁가의 모습이 강하다.

드라마 신돈의 책임 프로듀서인 MBC 드라마국 정은현 부국장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돈 캐릭터는 개혁가의 이미지와 정치적인 야망을 강조했다"며 "과거 일반에 회자됐던 요승·괴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에서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사상가의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신돈 캐릭터를 정의했다.

또한 정 부국장은 드라마의 초반 신돈의 무솔장면 등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했던 것은 극에 재미를 붙여넣고 신돈의 독특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드라마적인 정치로써 활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드라마 속 신돈과 달리 역사 속 신돈은 요승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고려사>나 제문집류의 기록을 찾아보면 '신돈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간통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대에도 요승(妖僧) 요승(妖僧) 신승(神僧), 늙은 여우의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

다'는 식의 비난 일색이다.

과연 그는 요승인가. 이에 대해 황인규 교수(동국대 역사교육과)는 신돈이 환속하기 전 화엄종의 고승으로서 현세를 구원하려 했으며 민중들로부터 성인이나 '문수보살의 후신'이라고 칭송됐음을 상기시킨다.

천축이었던 신돈은 고려시대 권문세족 중심의 불교계에서 배척당하는 미미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개혁을 주도하면서 기독교 세력과 대치하다가 모반죄로 처형당

바른 정치로 중생 구원하는 개혁가로 재조명

환속하기 전 '문수보살의 후신' 칭송되기도

한 이후 다시 득세한 기독교 세력에 의해 역사적으로 매도당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문화비평가 김현식씨는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요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걷어내고 개혁가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며 "드라마 신돈에서는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신돈 캐릭터 장출은 조금 부족하지만 최근 학계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교적 관점에서 폄하됐던 신돈에 대한 나쁜 인식을 걷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강지연 기자

부처님오신날·성탄절

TV 프로그램 비교

성탄절은 국민 명절?

"불교계 적극적 언론포교 필요"

"기획성 성탄 특집 프로그램은 줄어들면 기존 프로그램들은 성탄특집을 마련해 응시와 화합 정신을 이어가겠다."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2005년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 TV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탄절 프로그램의 정의 틀이 이렇게 나왔다.

프로그램 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탄절은 개신교의 예수탄생기념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즐기는 명절이 된 것 같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성탄특집을 진행한 결과 사랑과 나눔이라는 기독교정신은 산타크로스 이미지와 합쳐져 너저너리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특집 프로그램의 숫자에 있어서는 개신교 관련은 KBS EBS에서 제작한 3편뿐인데 비해 불교는 KBS MBC SBS 등에서 16편의 특집이 제작됐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이제는 불교를 이렇게 알려달라고 문텐츠를 제공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언론포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연말연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회의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허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날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